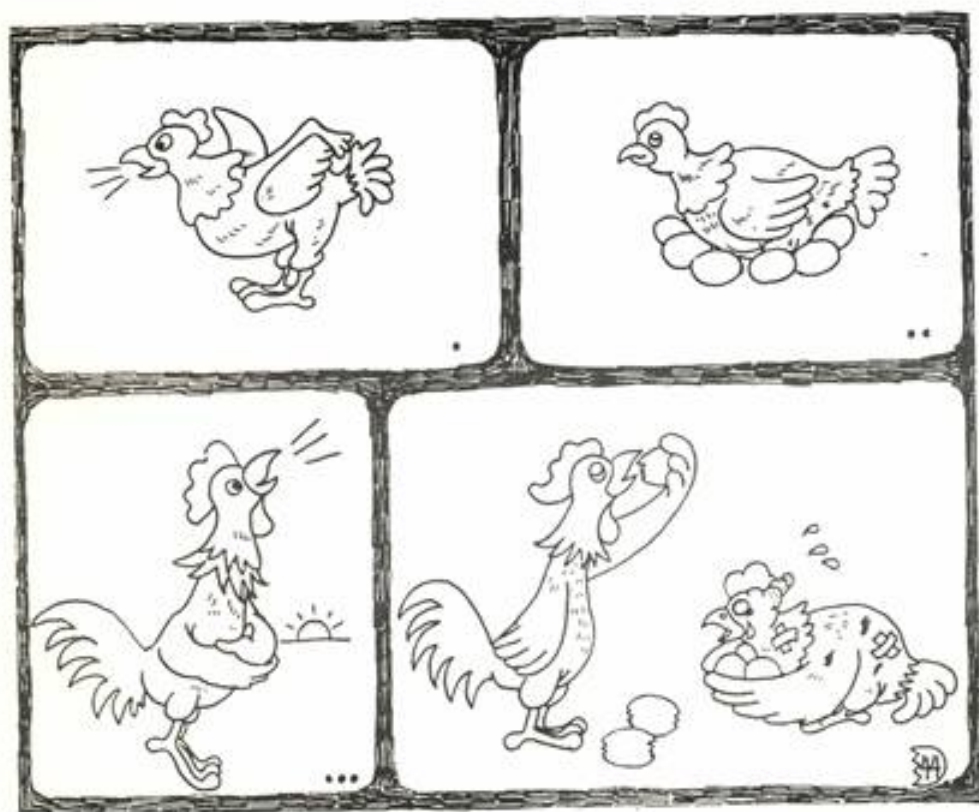


서강대
학우들을 위한
여성문제 관련
읽을 거리 소책자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 읽을거리들 ★

남성칼럼	여성문제 뒤에 가려진 남성문제에 관한 제의.....	2
여성칼럼	나는 여성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6
주장	여학생협의회, 여학우들의 삶을 파고 들겠습니다.	7
살의 이야기-1	여대생의 자취생활.....	9
살의 이야기-2	“오늘은 빨래나 할까?”.....	10
보고문	만화를 통해본 사랑유형 보고서.....	12
고정관념 깨기 그 두번째	당신의 남자친구는?	18
의견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 사학과 여성학회	20
현실진단	여대생취업	22
나도 한마디!		25
편지글	사랑하는 나의 동지에게	26
캠페인	“여휴는 내밤이야!”.....	28

남성컬럼

여성문제 뒤에 가려진
남성문제에 관한 제의

생물 92 김종우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성의 생물학적 기능, 구조의 차이에 의한 1차적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 그에 따른 성의 역할 차이로 인한 2차적 분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간이 속해있는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이런 분리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인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많은 가시적인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적 전통이 근본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여성에게 많은 제약과 업과 인고를 강요해왔다. 이렇게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기에 여성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고, 실로 그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제기되는 그 이면에 여성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남성문제를 간과해버리는 오류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해본다. 남성 또한 여성에 상대되는 성으로서, 여성의 문제에 해당할 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성에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되고 남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할 때, 여성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남성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이다. 어릴 때부터 남성에게는 강조되어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남자는 용감하고 당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어야 하고 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자보다 더 우수해야 하고 여성에게 뒤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명의 압력이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다는 의식을 머리속 깊숙히 간직하고, 여자를 낮게 보게 된다. 하지만 그럴 의식은 자라면서 심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여자에게 뒤져서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우수한 여학생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속에서 남성의 열등감은 여성에 비해 조건이 나은 힘으로 열등감의 대상인 여성에게 표출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여성문제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남성에게 강요된 무의식적인 압력에 의해 비롯된 것을 생각한다면 여성문제와 남성문제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서로 엮여 있는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남성은 울어서는 아니된다. 가벼워서도 아니된다.' 이 말은 여성조차도 당연히 여기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말은 자유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방해물일 뿐이다. 슬픈 일에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울 수 있어야 한다. 또 남에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그 결과는 그를 통하여 잘 보여진다. 많은 남성들이 남성답지 못하다하여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의기소침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불쌍한 남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군대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현재 주위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군문제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는 이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까짓 군대, 갔다오면 될 것 아냐."라는 말을 몇몇 여성들은 쉽게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을 본다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번도 단체생활을 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군입대를 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길을 벗어 나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은 확실하다.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입장에 있어서도 군 입대 문제는 큰 방해물이다. 가까이 있는 이공대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공부를 계속

해서 석사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 군에 입대하면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공부와는 단절되어 그냥 낭비해 버리고 만다. 이런 점을 만회하는 방안이 '방위 산업체'로, 우수한 인력의 낭비를 막아 보자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5년이라는 근무기간은 저어도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큰 출혈이다.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계속 연구를 하거나, 할 수 없이 군대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진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한창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의욕을 군문제로 인해 꺾어 버리는, 남성에게 있어 커다란 벽이다.

요즘의 젊은이들(특히 남성)은 예전과 같이 열정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 사랑보다는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열은 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복의 척도가 경제적인 안정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데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는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실제로 화폐를 벌어들이는 남자의 경우 이런 경제적 능력의 상실은 곧 남자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면을 우선하는 것에서 씁쓸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삶의 존재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기에 어린 나이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은 경제적 능력을 벌어들이기 위해 정열을 쏟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반쪽인 부인에게서조차 무시를 당하고 자식으로부터 무능한 아버지로 낙인 찍혀 버리는 현실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고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으로부터 상실되어 가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자식들은 점차 친가와 멀어지고 외가와 가까워져 버려 모계중심의 가족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돈을 벌어드 주는 기계로 취급되어 버린 아버지, 자식들로부터 소외된 아버지, 더 이상 어디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재수 시절, 이른 새벽 지하철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은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성문기본영어'를 보고 계시길래 하도 궁금하여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지하철에서 중고등학생이 보는 영어책을 보고 계시는지를 여쭙어 봤더니, 대답은 회사에 승진시험이 있어서 매일 같이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에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때

당시 그 말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청년이 가까운 나이의 아저씨가 승진되기 위해, 회사에 남기 위해 젊은 사람들도 귀찮아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우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성문제만큼 심각한 남성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 어쩌면 이러한 남성의 모습이 여성이나 심지어 남성에게 당연시 되어왔는 지도 모른다.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남성과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많은 남성들에게 남성들의 문제를 도외시한 이기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 것 또한 사실이다. 분명 문제의 해결에 있어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다. 서로의 위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여성, 남성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여성들의 주장대로 남녀의 차별이 없어진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국 서로를 받아 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제까지 제시해 온 남성들의 문제를 남성만의 문제로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여성 또한 역할이 바뀐 입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문제건 남성의 문제건 '누가 더 손해를 보는가?' 하는 유치한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필수적인 것이고 남녀의 역할분담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게 더 효율적이고, 여성만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건 지당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자는 꼭 남자의 모습, 성향을 지녀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강요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강요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혹은 여성의 성적 역할에 따라 보는 것으로 인격체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인간을 남, 여로 구별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별 짚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남, 여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길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로 인해 여성만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여성학우들에게 사고를 전환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 본다.

여성칼럼

나는 여성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온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새로운 일들에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요즈음에 하는 여러 선거들입니다. 여협선거에서 총학생회 선거까지, 이 선거들 중 제가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여학생협의회'.

하지만 저는 이 여학생협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지 뭐' 하는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때까진, 입시때문에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다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전 여성문제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대학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행사등에서 여학우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들에선 그다지 여성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학생협의회에서 여성문제를 여학우에만 국한된 어떤 활동들을 함으로써 남학우들과 구별해 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학교내 여학우들만의 모임이나, 사회의 여성단체들에서 해온 일들은 '문제점의 제시'에만 급급하고 해결책이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 여성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진 않았지만 선배님들은 졸업 후 직장을 구할 때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만 확실한 실력을 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여학생협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여선배님들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신여성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장

여학생협의회, 여학우들의 삶을 파고 들겠습니다.

제 7대 여학생 협의회 구성을 위한
박정은, 유정민 선거 운동 본부

“여학생 협의회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참으로 각양 각색이다. 여학생들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지나쳐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까지. 남성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더라도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학생협의회 같은 건 어때? 여학생협의회는 여학생들끼리 모여 불평불만이나 하는 데냐?”하는 장난기 어린 말들은 정말 여학생들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학내에서나 전 사회 생활에서나 더 자유로운 생활, 풍부한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의 의지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압 상황은 그 차별받는 이들의 결속을 필요하게 하고 기타 여성단체들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학내에서 여학생협의회, 총여학생회등의 형태로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서강 여학생협의회의 발전양상과 문제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강에서는 처음 제1대 여학생협의회(전 서강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으나 당시 기층 과 학생회에서 학내 여성문제에 관한 고민이 공유되지 못했기에 과 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한채 총여학생회의 와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금 모습처럼 과도기적 형태의 여학생협의회가 서게 되었고 몇차례 새로운 여학생협의회가 들어서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은 확산되고 각 과에도 여학생모임과 여성학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성문제 고민이 여학생협의회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모임 속에서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심했다. 각 과 여학생 모임, 여성학회의 과 학생회내 공유가 부재한 상태에서 타

과와의 연계, 지속적인 모임의 건설과 각 과 여성학회의 여학생협의회로의 총괄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층단위 여성학회도 거의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진 각 과 여학생 모임, 여성학회의 재건과 활발한 대중사업 속에서 남학생까지의 포괄적 여성문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각 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여성문제를 교육하려는 노력이 나왔다.

원래 여학생협의회라는 기구 형태는 중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중도적이고 과도적 형태로, 그 활동에 있어서도 범위와 책임선이 애매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견지하였을 때, 각 과 여학생회를 연결하고 지도하며 몇 번의 대중사업을 터뜨리는 기구가 아닌 진정한 여성 해방을 위해 학생회라는 대중공간에서 기반하여야 한다는 근본 인식이 필요하다.

각과의 친목단체 성격의 계 모임과의 연계는 무리한 일일 수 밖에 없으나 각과 여성학회와 여협과의 연계로 전문적 내용과 교육방향의 제시를 함과 동시에 친목단체 성격의 모임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여성학회장 연석회의와 여학생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내용을 풍부히 공유하지 못할 뿐더러 각 기층단위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분산을 초래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소수 상층 여협 간부들 중심의 사업이 아닌 각 기층에 기반을 둔 여학생협의회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그래야 서강의 전 학원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학생협의회 기판확립을 통한 여성문제 인식의 과정은 자칫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여성만의 문제로, 피해의식에 의한 바르지 못한 관점에서 기인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기간 활동을 여권운동 정도에 그치게 만들기도 한다. 또, 자연 편협한 관점과 그런 시기 진정으로 풀어야 할 시급한 지점을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오류들이 바로 사회변혁인가, 여성해방인가를 분리 사고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나 여성문제의 원인을 물으면 사회구조적 문제라고들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피상적 이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단순히 여성들의 의식변화만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반발 심리, 저항 심리에 의한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반발 심리, 저항 심리에 의한 여성의 대응, 사회전반의 문제를 특정 인물, 자신에게 관련된 인물만의 문제로 사고하고 일시적 해결을 꾀하지만 진정한 여성 해방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게 마련이다.

내가 나의 남편과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전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은가? 바로 여성 문제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와 여성 노동력이 부차적으로 이해되고 싼 값의 노동력으로 이용되는, 여성의 성까지 상품화되고 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견지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전역사를 통해서 인지하는 계급적 인식, 다양한 계급, 계층을 총괄하는 사회 변혁의 한 일환으로서의 여성해방 운동이 요구된다.

살의 이야기 1

여대생의 자취생활

이제 서서히 가을도 깊어만 가는 것 같다. 낙엽도 떨어지고 서서히 싸늘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쌀쌀한 바람을 피해 별다른 일이 없는 애들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간다. 깨끗한 방과 청결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천천히 내 자취방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무언지 모를 비애를 느낀다. 네 다섯명 남짓한 내 방. 책상 하나와 몸을 반 정도 비춰주는 큰 거울 하나. 그리고 옷걸이 하나. 단출한 살림이지만 그 정도 들여놓고 나면 방이 팍 찬다. 부끄런(?) 말이지만 이불은 항상 바닥에 깔려 있다. 그리고 나니 방청소는 일주일에 두번이나 하면 많이 하는 거다. 요즘은 머리를 빗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빠지니까 테이프를 아예 준비해놓고 하루 한번씩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붙여올린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매일 자는데 만약 일요일날 야외인데 나갈일이라도 생긴다면 정말 문제다. 왜냐구? 빨래와 청소! 할 수가 없다. 그 이후로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도 못할까. 좀 게으르면 완전히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야 한다. 게다가 밥! 밥! 그놈의 밥!이 뭔지. '굶지마라'고 당부하시는 어머니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쪼그라들며 해 먹긴 하지만 청소나 빨래보다 더 귀찮은게 바로 밥!이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실 땐 점잖게 앉아 있다가 실컷 맛있게 먹고 가르릉거리며 따뜻한 구들목에 앉아 있으면 땡이지만 - 이걸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준비하는거부터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고 골목여귀의 점포에서 파, 마늘 등을 사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다 차린 뒤 밀반찬 꺼내 대충 먹고 찬바람 씩씩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한다. 휴. 불명만 덜어 놓은 것 같아 별루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해 오신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어머님들을 이 많은 일들. 적어도 3개이상의 방과 마루 현관 장롱위,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쓸고 닦으시며, 적어도 4면 이상의 옷들을 모두 모아 하나하나 구별해서 세탁하신다. 그리고, 밥! 아침, 점심, 저녁 게다가 학교 다니는 천덕꾸러기가 있는 경우 도시락까지 지으시고 설거지를 하신다. 나도 크면 그렇게 해야 할까? 가사노동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즉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들 한다. 이런 일들이 모두 가치없는 일일까?

나도 크면 가정의 어머니가 되겠지! 하지만 이런 일들에 메이고 싶진 않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체념적인 자세도 생긴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기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악! 아뿔튼 오늘은 집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열심히 해야겠다.

삶의 이야기 2

“오늘은 빨래나 할까?”

사회학과, 91학번, 성별:男

여러분은 혹시 자취라는 것을 해보셨는지요. MT나 캠핑을 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보았겠지만 거의 매일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남학생들은 이리저런 이유로 해서 그 수가 더 적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도합 6년째 자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자취를 오래하다 보니 이젠 이런 생활이 몸에 익숙할대로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내 시간에 편하기도 하고 때로 집에가면 어머니가 해주신 밥과 빨래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바지런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이야 밥에 해먹는 밤참이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서 사먹으니까 별문제이지만 날마다 쌓이는 빨래나 언제 어질러 놓았는지 난장판이된 방안을 보면 내가 왜 자취를 할까하곤 후회도 해봅니다.

청소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 정말 독한 맘을 먹고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깨끗히 청소, 정리, 청돈을 해봅니다. ‘아! 정말 깨끗하다. 사람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해’ 그러면서 곧 ‘이 정도면 다음 청소할 때까지 1주일만 버티겠지’ 하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웬 걸? 다음날 지친몸으로 MY SWEET HOME 이라고 돌아와 보면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고 그냥 놔둔 이불하며, 옷가지 그리고 누가 뿌려 놓기라도 한 것같은 먼지에 내가 정말 여기서 또 하룻밤을 보내야 하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시 나가서 술 퍼먹고 혼수상태에서 자기도 합니다.)

빨래 얘기를 해볼까요? 제 생활 신조는 ‘자취생 티를 내지말자’입니다. 그러자면 많지않은 옷가지지만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겠지요. 자연 빨래감이 늘게 됩니다. 청바지 빨아보셨어요? 빠는 거야 솔로 비벼한다고 하지만 행구고 물기 짜내다 보면 노가다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히도 제 바지는 모두 청바집니다.) 이런데다 겨울에 잠바라도 하나 빨 일이 생기면 저는 정

말 빨래할 의욕마저 없어집니다.

이런 제 생활에 가끔씩 정말로 특별한 부담을 얹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취를 하다보면 만만하게 자취생이라고 만취된 선배들의 때아닌 방문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제 자취방에서는 또 한번의 파티(?)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 다음날은 언제나 넘쳐나는 설겅이 거리와 쓰레기들이 아침을 열어주지요. (더이상 쓴다는 것은 참혹한 묘사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살아야 하기에 저는 이런 일들을 어쩔건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마저 가지고 저는 이일들을 합니다.

빨리 결혼해야 겠다구요?

그래서 아내가 도맡아 해주고 밥, 빨래, 청소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까요?

글쎄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라면 그러고 싶을까요?



"나는 이름이 없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일 뿐이다.
나는 집도 재산도 없다.
다만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광고뿐이다."



내 밑에는 결레가 있지

보고문

만화를 통해 본 사랑 유형 보고서

서강대생과 서강나루터



우리학교 정문을 나와 건널목을 건너 바로 보이는 건물 3층에는 '서강나루터'라는 만화방이 있다. '서강나루터'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곳이다. 시험기간중 공부하느라 어지러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찾는 곳, 공강시간에 자칫 허하기 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는 곳으로 서강나루터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다.

만화에 대한 논평 한마디

만화란 사회적으로 자질구레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소외받는 끝, 이상, 그리고 감정을 풀어놓는 아름다운 몽상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거나 과도한 폭력과 지나친 성적 노출로 인해 만화는 음성적인 언어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대의 민중적인 언어로서 '민화'가 있었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삽화등의 형태로 세태를 풍자하고 민중의 의지를 표현해왔다. 그만큼 만화는 다양한 얼굴의, 소외된 면을 그리면서, 진실한 삶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소설보다 훨씬 허구적이면서도 민중들에게(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 만화를 통해 본 사랑유형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만화서적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서강대생들에게 인기있는, 우리층의 사람들이 즐겨보았던 만화책들이다. 그속에서 숨겨진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자 한다.

◆ 『공포의 외인구단』(지은이 이현세)에서 까치와 엄지

이현세는 맥주광고에서 등장할만큼 유명한 만화작가이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그의 출세작이다. 까치와 엄지는 국민하고 친구이다. 까치는 슬픈 아버지 밑에서 주정을 들어주고 빈번히 매를 맞아야 하는 구질구질한 아이이다. 반면 엄지는 유복하고 부유한 딸들만 있는 집안의 맏딸이다. 그러나 심성이 고와 남들도 멀리하는 까치와 허울없이 친하게 지낸다. 이에 까치는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는 엄지가 좋아 엄지가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한다. 공부를 잘하라는 엄지의 말에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엄지를 위해 야구를 한다. 그러던 어느날 엄지는 서울로 가고 까치와 이별을 한다.

그후 10년 후...

엄지는 여고생이 되어 마동탁이라는 훌륭한 야구선수의 여자친구가 되었다. 까치는 엄지를 만나기 위해 시골에서 야구선수로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그러나 엄지는 현실을 이미 인식하게 되고 '불품없는' 까치보다 '잘나가는' 마동탁을 선택하게 된다. 까치는 엄지의 이러한 선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로 엄지를 위한 야구, 엄지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 이러한 까치로부터 엄지는 감동받아 다시 까치에게로 돌아오지만 외부의 조건 - 소외된 사람들의 꿈의 시작인 외인구단의 결성과 2년이라는 장기간의 합숙훈련으로 인해 엄지는 마동탁에게 시집가고 만다.

어느 글에 의하면 까치는 민중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가진 것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자존심으로 버텨나가는 까치. 그에 반해 마동탁은 가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부족한 것 하나없고 주어진 것으로 자연스레 성공의 길을 걷는 마동탁. 엄지는 그속에서 갈등하고 동요하는 역할, '여자'. 오히려 까치는 남자다운 순박함과 지고지순함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고, 사랑에 '선택'되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어쨌든 엄지는 까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까치와 엄지 모두가 상처받고 불구화된 심신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남녀의 진정한 사랑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이현세는 작금에 들어 불루엔젤이라는 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생활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영글어갈 여성과 남성을 그려나갈 것을 기대하며, 사랑에 순수했던 까치와 엄지에게 애정을 보내주자.

♣ 『카멜레온의 시』(허영만)에서 감토와 장미

『카멜레온의 시』는 다른 만화보다 인물성격묘사가 존재론적이다. 작가 허영만에 대한 평가가 실존적 허무주의자이듯이 말이다. 명범하지만 단청을 모르는 강토와 여우같고 속을 보이지 않는 계산에 철저한 여자 장미.

장미는 강토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강토에게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주지 않는다. 장미는 강토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어쩌면 이 시대의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여자의 전형이다.

강토는 자신에 대한 장미의 사랑이 언젠가 배신할 사랑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장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의 삶마저 황폐화되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표현하는 여성의 이면성, 남자들이 생각하는 믿지 못할 여자의 구석을 잘 표현한 만화이다. 이 만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믿지 못할 다리를 절감한다. 언젠가 우리모두가 건너야 할 다리인데, 인류가 만들어놓은 남자와 여자의 허구적 괴리.

비록 강토와 장미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멜레온의 시』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지만 그들이 발견했어야 할 '사랑의 적'을 우리에게 과제로 남기고 있다.



♥ 『북해의 별』(지은이 김혜린)에서 유리핀 맨피스와 에델바이스

김혜린의 처녀작이다. 19권의 장서이다. 읽어볼만하다. 혁명적 낙관주의, 혁명적 몽상주의가 흘러넘치는 만화책이다.

카리스마적이고 능력있는 여자에 대해서는 헌신적인 남자와 가녀린 나머지 일을 그르치면서도 남자에 대해서는 엄마처럼 한없이 너르려운 여자의 이야기이다. 북해의 별은 가상의 나라에서 자유, 평등, 인류애를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나, 사실상 혁명에 관한 이러한 주제는 유리핀 맨피스와 에델바이스의 사랑 이야기에 비하면 부수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순정만화의 헛점이다. 순정만화는 '사랑'으로 도배되고 이에 여자들을 어릴 적부터 길들여지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한 여자, 사회에 무관심한 여자. 남자를 통해서 정치를 보고 남자의 어깨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여자인 에델바이스와 지도력있고 자신이 뜻한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인 유리핀 맨피스. 여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순정만화치고 남자들에게 인기있었던 요인이 여기에 있다. 유치한 성적 자극으로 순정만화의 맥을 이어가려는 요즘 순정만화 무크지를 보며 『북해의 별』의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정만화의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 『슬램덩크』에서 벼호와 소연이

『슬램덩크』는 10대에서 30대까지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YMCA같은 시민단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색(『슬램덩크』의 작가는 일본사람이다.)일 뿐더러 폭력적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인류라면 누구나 감동하고 재미있어하는 보편적인 정서가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아주 잘 표현되었기에 암암리에 대학생들에게도 있기있는 만화책이 되고 있다. 아뭏든, 왜색적라는 평가를 접어두고 인류적 보편성으로 『슬램덩크』에대한 평을 하고자 한다.

『슬램덩크』는 농구하는 고교생의 이야기이다. 천방지축이고, 어쩌면 '까치'와 비슷하다. 까치와 다른 점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이다. 까치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경로에서 여자의 역할은 격

려와 끊임없는 배려에 있는 반면, 백호의 능력을 발휘하는데서 소연이의 역할은 실제적인 '지도'에 있다. 이것이 신세대의 관계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여자를 위해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자기 삶에 일부분인 남녀관계. 백호는 고교생 캠프이다. 양호열을 비롯한 의리있는 친구들이 있고, 중학생때에는 매번 여자로부터 퇴짜를 맞는다. 그것을 재미로 알다가 소연이의 권유로 농구를 시작한다. 그런데 백호는 농구가 체질에 맞다. 그리고 농구에 관련해 자신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연이는 그 학교 농구팀의 MVP인 서태웅을 좋아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있고 자기곁에 가까이 있는 백호에게 마음이 쏠려진다. 이 『슬램덩크』의 주 소재가 '백호의 야구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슬램덩크』는 요즘 젊은 층의 사고를 반영한다. 애초부터 『슬램덩크』는 심각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에서 고소영과 이창훈의 신세대 부부와 같이 말이다.

서로의 끈질기고 애절한 사랑보다는 가벼우면서도 재미있는 사랑법.

『슬램덩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상컨대 백호의 야구실력은 계속 신장될 것이며, 소연이와는 그저(?) 그렇게 될 것이다. 신세대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진행형'을 즐길 것이며, 『슬램덩크』는 그에 부응할 것이라 본다.

『슬램덩크』속에서 백호와 소연이가 자신의 고교생활을 영위하면서 보다 깊이있는 관계로 나아가갈 것을 기대해본다.



★ 『취접냉월』(지은이 황미나)에서 홍가연과 소방주

『취접냉월』은 무협적인 이야기를 '순정만화식'으로 풀어나간 만화이다. 홍가연은 홍씨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여자이고, 소방주는 그 원수의 대를 이을 남자이다.

홍가연과 소방주는 둘다 무예에 뛰어나다. 무협의 세계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와 남자다. 그 다음은 편하다. 그 둘은 사랑을 하게 되며, 서로 한번씩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다. 결국은 홍가연과 소방주는 결투를 하게 되고,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에서 홍가연이는 소방주에게 "당신의 칼에 죽는 것이 행복하다"며 소방주의 칼에 스스로를 찔리게 한다.

『북해의 별』의 세상과는 별개인 유리핀맨피스와 에델바이스와 비교해본다면, 세상과 얽힌 홍가연과 소방주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상투적인 남녀 구도를 못벗어난 데 있다. 홍가연이라는 곳곳하고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는 내심 '남자'에게 자기 생을 바치는 이야기.

이것이 아직도 여자를 길들이는 이데올로기이며 사회가 조장해놓은 여성비하의 반영이다.



물론 만화는 허구적이며,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의 이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그 발상자체부터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소설만큼이나, 어쩌면 소설보다 더 탁월하게 민중의 정서를 표현하는 만화. 그속에서 표현되는 남녀의 관계는 굴절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진다.

위의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세상을 비판과 애정의 눈길로 보듯이 만화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눈길 또한 애정과 비판이 담기기를 기대하며, 만화애호가의 '만화를 통해본 사랑유형 보고서'를 마친다.

고정관념깨기, 그 두번째

당신의 남자친구는?

- #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분 나빠할 것이다.
- # 자신과 사귀는 여자에게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사회규범을 적용한다.
- # 지나가는 여자에 한마디씩 평을 한다.
- # 어느 집단이라도 책임자는 남자. 보조자는 여자여야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 #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과기대, 카톨릭의대생의 여자와는 미팅하려 하지 않는다.
- # 여성문제에 관한 책을 한권도 읽지 않았다.
- # 성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 매맞는 아내를 보면서 '맞을 일을 해서 맞는다'고 생각한다.
- # 여학생협의회를 보며, '여자들끼리 모여 뭐하나?' 라는 말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 # 정력적이어야만 남자답다고 생각한다.
- # 여자와는 성지식을 교환하지 않는다.
- # 군대얘기를 빈번하게 한다.
- # 160 cm, 45 kg을 여성체격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한다.
- # 여자한테 술을 못따르고 담배불을 못 붙이게 한다.
- # 여자는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 #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를 보면 눈살을 찌푸린다.
- # 매매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한번도 없다.
- # 남자가 여자를 여러번 사귀는 것을 '농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자가 남자를 여러번 사귀는 것을 보면 '편력이 심하다'라고 생각한다.
- #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는 눈물에 약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남자친구는 앞의 항목중 몇개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여 TYPE을 골라 진단해보세요.

A-TYPE (0개에서 5개)

- 당신의 남자 친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여자앞에 서면 주눅드는 남자.

당신이 당신의 남자 친구와 친구사이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는 여자앞에서 주눅드는 타입입니다. 그와 여성문제를 이야기 이전에 그의 인생 전반에 관한 가치관과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물과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애정이 필요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B-TYPE(6개에서 10개)

- 당신의 남자 친구는 여성문제를 적당하게 생각하는 남자.

당신의 남자 친구는 여성에 대해 비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여성문제는 적당한 생각으로 적당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가 지루할 정도로 집요하게 여성문제를, 그의 생각 밑바닥까지 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전제된 것은 당연하구요...

C-TYPE(11개에서 15개)

- 당신의 남자 친구는 귀남이 타입

당신의 남자 친구는 귀남이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남자로서 지켜야할 규범에 강박되어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 너그러운 것 같지만 생활상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타입입니다.

당신의 남자 친구에게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여성이야기 주머니』를 선물하는 것으로 표현함은 어떨런지...

D-TYPE(16개에서 20개)

- 당신의 남자 친구는 대발이 타입

당신의 남자 친구는 여성관에 대해서 아주 확고합니다.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동물로 치부하는 한편, 가부장적 의식이 박혀있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가 당신에게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해도 그것은 삶을 나누자는 인생의 동반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결단을 하십시오. 그에게 아주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시고, 그 '평등'의 내용은 이 소책자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C관 2층 서강방송국 회의실, 제 7대 여학생 협의회 구성을 위한 박정은, 유정민 선거 운동 본부로 오세요. 기꺼이 환영합니다.

의견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 ...

- 사학과 여성학회에서 <stereotype?!> 기획시리즈를 만들면서 -

사학과 여성학회

세상에는 수많은 규정과 경계선들이 있다. 서로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로 쳐놓은 수많은 굴은 선들과 높은 벽들, 그런 선에 걸리고 벽에 막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사학과 여성학회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 작업은 2학기 처음부터 논의되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피해자로서 여성들의 쓰라림, 또한 그 반대급부로서 남성의 물개성화에 대해 논의해보는 가운데 우리는 페미니스트, 성폭력(강간), 사랑,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고정관념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제작하였다.

1)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오도된 여성해방론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코너에서는 페미니스트란 과격한 성해방론자라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소중한 정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다.

2) '데이트 강간'은 강간에 대한 표피적 정의에서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소급해 보려는 시도로 여학생협의회의 성교육 자료집을 참고했다.

3) '직장에서의 남과 여' 코너는 사회로 진출한 여성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남녀의 비교를 통해 진단해 보려는 '남성/공식적 세계 & 여성/사적인 신변잡기'라는 무의식적인 구분을 느껴볼 수 있도록 시도했다.

4) '사랑에 대한 문제'는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때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여성이 사회에 나갔을 때, 편견의 벽은 더욱 깊고 견고해집니다. 승진이나 출세라기보다도, 생활태도 하나하나에 작은 편견들이 스며 들어가 여성을 소심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남과여-,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치밀한 고정관념의 벽을 한 번 되돌이켜 보세요. 사학과 여성학회에서 준비한 <고정관념 깨뜨리기>의 세 번째 기획입니다.

남자사원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 아침 믿음직하고 책임감있는 가장이군.

그가 책상위를 어질러 놓은 것을 보고 : 그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가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 요즘 추진중인 계약문제를 토의하고 있겠지.

자리를 비웠을때 : 회의에 참석중일거야.

사무실 안에 없을때 : 고객과 만나고 있겠지.

상사와 점심을 먹고 있을때 : 출세하겠군.

상사가 비판했을때 : 앞으로 더 잘하겠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때 : 화 좀 났을거야.

결혼할때 : 좀 더 안정되어 일을 잘하겠군.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 월급을 올려줘야 할거야.

출장을 나갔을때 : 경력에 보탬이 되겠는 걸.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을때 :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이 있단 말이야.

여자사원 책상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 흥 직장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는겠지.

여자사원이 책상위를 어질러 놓은 것을 보고 : 틀림없이 조직적이 못되는 산만한 성격이야.

여자사원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자리를 비웠을때 : 또 화장 고치러 간게 틀림없어.

사무실 안에 없을때 : 쇼핑하러 갔을거야.

여자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을때 : 깊은 관계를 맺는게 틀림없어.

상사가 그 여자를 비판했을때 : 정신이 없겠지.

여자사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때 : 울었겠지.

결혼하려는 것을 보고 : 임신하면 일을 그만 두겠지.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 해산휴가 수당에다 회사가 돈깨나 버리지.

여자가 출장을 나갔을때 :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을때 : 여자들은 도대체 믿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야.

현실진단 - 여대생취업

인문계 여대생 졸업반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낚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자주 되뇌이곤 하는 말 중의 하나다.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지망자는 많으니 취업공고에 붙으면 수업보다는 취업정보센터에 먼저가서 지원하고, 과 게시판에 붙은 추천서에 관한 정보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고, 신문등에 난 사원모집 광고도 늦기전에 연락해보고 ... 그래야 조건과 보수가 맞는 일자리를 최소한 졸업하기 전까지는 하나, 들쭉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는 막연한 취업준비로 인한 두려움으로, 4학년 2학기는 이력서와 빠른 발걸음으로 다 지나가고 만다. 그것이 비단 문과대생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과, 학교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원도 못하는 분야가 있다.

문과대 여대생의 경우 그 한 예가 일반 관리직의 경우다. 남학생들은 개별적인 지원으로 관리직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생의 경우 공채와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서직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받지 않는 그러면 공채와 은행쪽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여성공채」라는 딱지가 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여성을 극소수 채용하며, 은행의 경우 요즈음은 대부분 각 과로 들어오는 추천서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대부분의 과가 성적 또는 추천경쟁이 다소 치열하다. 그래서 추천자들은 그 경쟁률을 낮추고자 하는데, 그 방법들 중의 하나가 “여자들은 추천서를 내봤자 은행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니 남자들에게 아예 양보를 하라”라는 다소 위협적인 권유다. 실제로 은행원 모집과정에서 여학생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라고 100%의 합격률 보장받는 경우는 아니며, 여학생이라고 서류전형에서 100% 불합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여학생들의 은행에 대한 도전은 그 문턱도 못 넘어보고 학내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공채는 어떤가? 평균 100 : 1을 넘는다. 대부분 1차는 서류전형인데 그 선발 기준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사측은 지원자들로 부터 항의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선발하지 않는 데서 그 차별은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 탄식만 할 수는 없다. 취업을 한 많은 선배들의 말을 빌면, 여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없어 성공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구체적인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슷한 전망을 갖는 사람들과 모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남학생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다. 현재 남녀 차별 고용과 차별적 임금의 현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동등하고자 노력할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또, 취업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 즉 보수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활의 마무리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삶의 문제다. 따라서 서둘러 조건만 보고 직장을 선택한 경우, 막상 그 분야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현실에 근거해 정확히 알고, 홀로 서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함께 취업을 준비해 나갈 때, 절망과 체념으로 다가오는 취업이 아니라 삶의 진지한 문제로 다가오는 취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경험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걸을 후배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라 본다.

이공계 여대생 취업반

나는 화학과 여성학회를 삼 년여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여성문제를 고민했었고 여성취업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좁은 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여성에게 배타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내게 닥쳐 왔을 때 초연할 수는 없었다. 나보다 학점 낮은 남학우들도 벌써 다 취업을 했는데 나를 비롯한 여학우들은 아직도 실업자로 남아 있다.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분노를 넘어선 강한 오기와 나의 일을 갖고자 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공대의 경우 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채의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특채란 기업이 학교에 일정 인원을 추천해 줄 것을 알려오는 것으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과 적성검사만으로 쉽게(?) 취직이 가능한 통로이다. 그러나 이 특채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학생들에겐 돌아 올 수 없는 혜택이다. 보통 여름방학에서부터 10월 초까지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남학우는 거의 이때 취직이 되고 11월 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여학생들 뿐이다. 11월 초에는 공채가 있다. 필기 시험과 면접, 적성, 신체검사 등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필기 시험의 과목은 보통 영어(토플이나 토익), 상식, 논술이다. 영어 준비는 삼학년 겨울 방학때부

터 하는 것이 좋고 상식은 평소 신문을 열심히 보고 10월에 최신 시사잡을 구입하여 보는 것이 좋다. 9월과 10월은 회사 설명회(학교까지 찾아와서 한다.) 들으러 다니고 거기서 받은 원서내려 다니느라 다 흘려간다. 원서 쓰는 법은 서점에 나와 있는 각종 취직 대비 서적을 참고로 하면 된다. 다만 사진은 5*7와 4*4 두 종류로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큰 것은 대기업용이고 작은 것은 중소기업용이다.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사들을 찾아 다니다 보면 사실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지만 많게는 20장에서 10장 까지 원서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서류 전형에서부터 여학우의 원서는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여성인력도 채용을 하는지 여부가 정보로서 가장 절실하다. 학교의 취업정보센터가 미비한 관계로 직접 선배들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밖에 없으며 과단위로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상황, 전화번호가 수집되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대학원으로 모집의뢰가 들어 오기도 하므로 대학원 선배들에게도 부탁을 해줘야 한다. 치열하고 절박한 취업 전선에서 실의에 빠져 원래 하고자 했던 일 또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높은 이직률이 그 결과이다. 물론 그 일을 직접해보기 전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다. 자신을 고정된 영역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이 접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나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은 가지길 원한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문제를 통해서 여성 문제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남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바로 자신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으면 상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차 취업하게 되면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나머지 많은 여성들을 딛고 선택되었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이 땅의 여성으로서 억압의 상황을 함께 벗어나기 위해 모이고 일해야 할 것이다.



젠 틀렸어!

나도 한마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없는 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마음내키는대로 내려서 작은 찻집이라도 들어가면 현연기들이 여기저기서 굴뚝을 만든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집안 공중 전화 박스 주위에는 속을 까뒤집고 찌그러진 글로리아 88들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인상 구기면서 잠시 그 담배공초들을 냉대해왔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흡연하는 학생이 80% 이상 이나 되고 흡연자 대중에게 제외된 소수의 학생의 따로 흡연실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한다는, 어른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해 할 보도를 했다. 그러나 그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신속 정확한 보도였다. 반면에 세상이 담배를 기호품으로 좋아하던 시대는 갔다는 말도 들린다는 구미선진국에서는 생산량을 밀도는 소비량때문에 담배수출을 강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잘 사는 어른들도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는 사회적 선전을 철떡 같이 믿으며 금연운동을 하고 있다. 간접 흡연이 인정되고 흡연권이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매스컴이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이 이제 준선진국을 잠시 기뻐하는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금연이라는 글자가 확실히 크게 등장했고 꺾연자는 부담스럽게도 3석으로 내몰렸다.

'좋은데 흡연하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92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것 좋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참아야 할 것 같아요.' - 93

'금연 구역은 꼭 필요해요. 목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93 비흡연자

이렇게 다양한 이해가 있다. 여학생 흡연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이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길거리나 심지어 개방된 학교의 식당이나 휴게실에서의 흡연조차 다시한번 눈길을 주는 학우들이 있다. 이것이 편견으로 보이는 것도 여자가 '왜 저래'라는 생각을 먼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흡연문화라는 것은 우선 남여의 성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적으로 흡연자는 다방이나 공중전화 박스등에 담배공초를 버리는 일을 절대 하지 말것.

길거리에서 흡연은 정말 불편하다. 바람이 아니면 불도 꺼지기 마련이고, 담배재가 날아갈때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다. 금연된 대중음식점에서 식후 담배 금연이라는 악몽같은 일을 행할때마다 '내 팔자가 왜이래' 하면서도 가게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포기를 하곤 한다. 하지만 안개도시에 들어섰다는 신선같이 해탈한 표정으로 다방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자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필요한 금연구역과 맞먹는 흡연구역도 필요하다. 적당히 참아가며 살아가자는 내 주장이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의 요구일까?

편지글

사랑하는 나의 동지에게

서강의 1,200여학우라는 말은 많이 운위되어 “1,200여학우”라는 어구에서는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옥천서강중에 1,200을 뺀 4,800명의 남학생들을 부르는 “4,800남학우”에서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온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부터 하느냐? 여성문제에 무관심하면서도 여성문제에 개방적인 너를 생각하며 정말 여성문제는 개방적이면 끝나는가?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유아무야로 돌리면 끝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평소에 스쳐지나가는 있으면서 없는 듯한 없으면서 있는 듯한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 여성문제는 삶의 문제라는 생각이 주마등같이 스쳐가기 때문이다.

너에게 얘기했던가? 내가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느꼈던 때에 대해서.

대학에 처음 들어와 선배들과 남자 동기들로부터 술자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한채 방황했던 대학 초년생. 나는 그 바람에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맞았었다. 이를 어느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선배가 하는 말, “남자가 학사경고를 받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자가 학사경고를 받는 일을 칠칠치 못한 일이다.”

난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자는 왜 공부를 못하면 안되지?라며 ‘학생’이라면 학구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을 먼저 배운 것 같다. 물론 그 때 난 그 선배에게 “남자들은 왜죠?”라며 발끈했었지만, 진지하게 ‘여성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지는 못했었다. 그 이후에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분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인간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성의 구분이라는 강박관념에 엉켜야만 했던 것 같다.

너는 어땠을까? 너도 여성과 남성이라는 강박관념에 나처럼 시달렸을까? 아니면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고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 여자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 성차이를 그저 무시하고 한 인간을 고뇌하면서 삶을 배워왔을까? 너랑 진보와 역사, 각자의 삶의 전망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 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서 막상 이런 주제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기까지 하다.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배려하려 하고 따뜻한 눈길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삶의 아픔과 상처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 일년 여학생협의회라는 기구에서 활동하면서도 막상 나에게 다가오는 잡다한 여성문제를 너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배려하면 참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남자에게는 남자다운 허세로, 여자에게는 여자다운 허영으로 가려진 것은 아닐까?

여성문제는 삶의 문제이지만, 실존에만 머물지 않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 사무직 여성들에게는 직장에서의 공공연한 여성비하의 문제, 생산직 여성들에게는 임금차별과 후생복지의 문제등등. 이러한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항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구조로부터 배태되는 문제이기에, 문제해결에 대한 너와 나의 진지한 자세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현대에 들어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 '남성문제', 이도 포괄하는 여성학이 인간학이 되는 그날까지 말야.

여학생협의회. 나는 여학생협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서강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각 과의 여성학회와 연대해서 강연회도 하고, 기지촌 활동등을 통해 가장 상처받는 이땅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영화제나 사진전을 통해 여성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치? 하얀 얼굴에 나를 향해 예쁘게 웃던 "4,800남학우", 바로 너와 함께 말야.

동지라는 말을 쓴 이유를 이제야 알겠지?

너 언젠가 "나를 사랑하냐"며 물어봤지?

뜻을 같이 하는 친구.

난 너를 사랑한다.

캠페인

“여휴는 내방이야!”

영문과 91학번

혼란스러웠던 1학년 초,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학생휴게실의 존재는 내게 신선한 감동이었다. 모든 고내 공간이 남학생 독점이다시피한 캠퍼스내에 여학생만의 공간이 있음은 마치 숨 실 곳을 발견한 듯한 안온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나 가끔씩 낮잠도 자고 공부도 하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던 이곳에도 석연치 않은 몇가지 문제점들은 있었다. 한두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휴게실 전체의 굴독화,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청소로 인한 흡연으로 지저분한 분위기. 나는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랐으나 그것 뿐, 여휴가 내가 직접 돌보고 사랑해야 할 나의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에 휴지하나 줍지 않고 있었다.

지난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방학내내 청소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여휴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바닥을 핑구는 신문 뭉치, 책상 위에 널린 식판, 담배 공초... 여휴의 친구와 나 그리고 한사람의 조력자는 여휴 대청소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개학 며칠전 빗자루를 들었다. 소파를 젖혀가며, 물걸레로 구석구석 먼지를 닦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어쩔 이렇게 더러울 수가. 거의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청소는 일부 서강 여학생들의 숨겨진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쳐 내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웅당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이 상식이 내동댕이쳐진 식판만큼이나 무시되고 있었다. 소파사이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둔 담배공초, 아무대나 떨어버린 담뱃재의 불결함은 한편 금연의 시급함 또한 깨닫게 했다. 청소의 경험은 이후 관리의 지속성을 인식케 했고 나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아르바이트생모집에서 여휴청소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또 흡연문제 해결은 위해 여휴 친구들과 의논을 모아 금연을 정착화시켰고 매일 청소도 꼬박꼬박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여휴 이용상태가 나아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디뎌들 좋겠다. 여휴는 내 방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커다란 내방 하나 생겨 뿌듯하고 언제나 깔끔하니 기분 놓고, 아뭏든 부수적인 효과는 한둘이 아니다.

여휴청소를 해오면서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망을 키우게 되었다. 여휴를 꿈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소꿉녀 세라가 춥고 절망적이던 밤에 문득 깨어나 보았던 변모된 다락방처럼 변화한 꿈꿀 수 있는 여휴를 만들고 싶다. 물론 나의 뜻만으로는 더딜 것이다. 모두가 가만히 속삭여 보자. 미소를 머금고.

‘여휴는 내방이야.’





남녀의 개성
서로에 대한 개방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제7대 여학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박정은, 유정민 선거운동본부